

북한개발소식

12

2021 DEC | 통권 194호

| 이달의 주제 |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 북한선교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 북한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DEC

이달의 주제 :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 북한선교

권두칼럼	01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 북한선교
칼럼_1	10	정종기_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칼럼_2	17	오성훈_ 위드코로나 시대, 통일선교의 전망과 기도 방향
칼럼_3	23	하광민_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북한 뉴스	29	‘위대한 김정은 시대’ 언급한 북한...‘김정은주의’ 또 강화 외
서평	36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보다
북한 기도 제목	39	위드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다시금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위드코로나 정책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주일 예배 등 주요 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당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취식이나 통성기도는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취식과 통성기도가 허용되며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 제한도 풀리게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 행사도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나 숙박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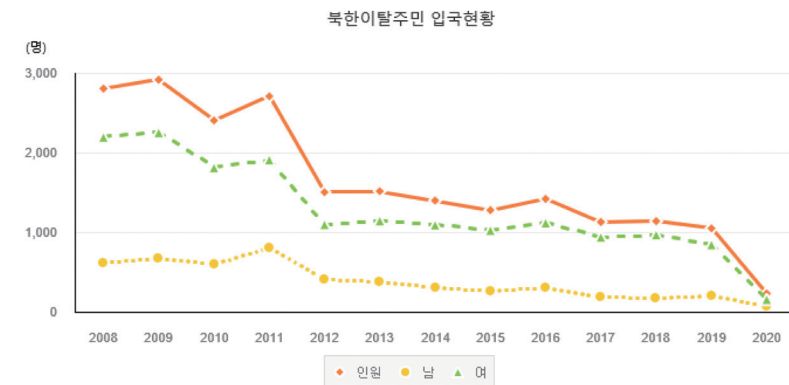
아직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 위드코로나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치료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잠시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고 종교활동의 제약도 점차 완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일선 교회들은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에 맞춰 발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프라인 예배 모임을 다시금 강화하고 그간 교회 방문이 어색해진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교회 활동 전반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바로 “선교”이다. 교회들은 만남과 모임의 제약을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나 모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어느정도 견뎌낼 수 있었지만, 직접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주가 되는 선교 활동은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교지들이 한국에 비

해 보건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코로나19 전파에 제대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현지 체류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고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건강 악화로 고통받거나 심지어 순교/순직하신 경우도 발생하였다.

북한 선교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 모두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의 경우 선교를 위해 머무는 제3국의 이동통제와 여행제한이 강화되어 제대로 된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숫자 변화는 해외 선교현장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년에 입국한 탈북자 숫자는 229명으로 19년의 1,047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21년의 경우 9월 기준으로 48명에 불과하다. 이동통제와 국경 봉쇄,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당국도 국경을 톱톱 걸어 잠그면서 제3국에서도 탈북자와 접촉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선교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교회 전반의 사역이 위축되면서 탈북민 사역을 담당하는 통일선교부나 북한선교부의 활동도 위축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모임과 활동의 제약으로 목양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또한 교회들의 사역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탈북민 성도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난 한 탈북 사역자는 “북한선교 열풍이 많이 식었다”며 북한선교부의 경우 사역자가 떠나가도 세워지지 않거나 해외선교부와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탈북민 양육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최근 목회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탈북민 양육이 일반 남한 출신 성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친밀감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서, 탈북 과정에서, 그리고 남한에 적응하면서 겪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꼭 필요하며 일대일이 아닌 여러 성도가 함께 한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적 차원의 사역이 절실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사역의 중단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노력들도 흔들리는 현상이 관찰된다.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19년도까지는 1천여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백명 대로 급감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초입에서 이제는 다시금 통일과 북한선교를 이야기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약해진 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특별히 새롭게 변화된 사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대응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사역 환경과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대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 정세 변화와 해외 선교 현장

먼저 해외 선교 상황을 살펴보면 위드코로나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역시 국경 봉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 내에서는 25년까지 국경을 걸어잠글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¹ 물론 단순한 엄포나 소문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봉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볼 때, 대내외적 통제 강화 외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장기화에 대응할

1 자유아시아방송, “북 "2025년까지 국경개방 어려우니 허리띠 조이라"” (2021.10.2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p-10222021083142.html>



〈20년 10월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요원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AP통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경제 부문에서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이에 대응하여 정치적으로는 엘리트의 교체와 함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함으로써 간부와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정세는 큰 변함없는 상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².

결국 북한의 경제상황이 변수이다. 대북 경제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제 일변도의 코로나 대응은 경제 부분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력 갱생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석기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성장률은 -4.5%로 역성장 했으며, 국경봉쇄와 경제재제로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이 제한되고 각종 기계 및 설비류 수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 북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면 이러한 부족 현상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결국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경제 발전은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³ 즉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유지

하기란 한계가 있으며, 국경 개방 및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진희관 역시 북한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발전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최근 외교적 움직임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다. 즉 북한이 올 3월만해도 주적으로 지칭하던 미국을 10월에 와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한국정부를 맹비난하던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도 9월 말부터 순화되었으며, 남북 통신선의 재연결 및 남조선혁명을 의미하던 당 규약 서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그 진의는 어떠한 간에 대외적으로는 강경했던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보급은 북한의 국경 봉쇄 상황 완화 및 북한 주변국의 이동통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로 보인다. 최근 화이자와 머크사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각각 ‘몰누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를 개발했다. 두 약 모두 입원하지 않은 경도~중등도 코로나 19 환자의 사망률을 절반 이상 낮추는 등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치료제 사용에 대한 각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 사용 승인이 되고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면 약제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보인 백신 도입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고려한다면 북한 당국이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백신 보다는 치료제를 주로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 주변국의 경우도 외국인 입국 통제나 이동 통제 등의 조치가 치료제 보급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맥락을 살펴볼 때 북한의 국경 봉쇄나 주변국의 이동통제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어쩔지 모르나 일정 시점을 지난 이후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완화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어찌보면 뻔한 이슈를 장황하게 나열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동안 수 년 간의 사역 공백이 발생하였고 많은 사역자들이 귀국하거나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 북한을 향한 선교의 기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선교현장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미 사역 방향을 변경한 이들의 경우 다시 지금 진행하는 사역을 중단하고 북한선교

2 진희관, “2021년 북한의 내부정세와 대외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0월호, 23-34.

3 이석기, “최근 북한 산업의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8월호, 24-29.

현장으로 복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사역자들이 양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역 경험과 교훈의 전수가 필요하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북한 선교 현장 사역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그간 쌓아온 북한선교의 경험과 유산이 무의미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통일 선교 사역

국내적으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통일 선교 사역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중단되었거나 축소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기도 모임도 재개되어야 하고, 교회 내 관련 부서도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탈북민 사역에 대한 교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탈북민 성도들이 소속 교회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방치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모임과 만남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탈북민 사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사역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하기는 했지만 이미 3만 5천명에 가까운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탈북자의 유입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상당수의 탈북민들은 기독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중에는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상당기간 영위해온, 그래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제3국에서 불안한 신분과 위협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 왔던 탈북민 성도 중 상당수가 신분이 안정되고 종교 활동에 제한이 없는 국내에서 오히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교회에서도 느껴지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목회자 등 탈북민들은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여러 장벽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별히 금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깨닫게 된 점 중 하나는 탈북민 사역이 단순한 출석교인을 만드는 사역이 아닌 제자를 세우는 사역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교회들은 탈북민에 대해 생활이 어려워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힘써왔다. 하지만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더라도, 물질적 매개체가 없더라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사역의 초점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평화나루교회 구윤희 목사는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구제와 가르침의 대상’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탈북민들에 깊이 자리잡은 ‘교회=물질적 도움처’라는 틀을 깨고, 영적 변화와 성장으로 사역을 전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성경적 치유와 관계 회복, 성결한 삶과 성경적 가치관 교육, 자기 희생과 섬김,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 등을 병행하는 전인적 구원사역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 사역자를 위시한 교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 출신 성도와는 살아온 궤적이나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 탈북민 성도들이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와 행실로 양육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은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전문적인 사역자들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해온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귀국하셨기 때문이다. 그간 오랜 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 사역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사역의 열매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탈북민 사역자들도 있다. 이러한 인력들이 국내에서 탈북민 사역을 포함한 통일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적재 적소에 활용된다면 한국 교회 전반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다.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다가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밥을 먹

4 크리스천투데이, “‘위드 코로나’ 시대, 탈북민 선교에는 위기가자 기회?” (2021. 10.28),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3398>>


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던 통일선교사역이 축소되면서 담당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잃거나 다른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들린다. 결국 개교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건이 무르익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갖추어 지더라도 교회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면 안타깝지만 사역의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자세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천명에 달한다. 해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일부 국가의 경우 재봉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곧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해외여행도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린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과 위드코로나 정책이 혼조세를 이루는 상황이다 보니 교회들도 단기적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배 모임 활성화 등 소위 “정상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들이 이러한 기조에 덧붙여 좀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북한선교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 상황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최근 치료제 개발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던 정상화 과정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선교나 북한, 통일 관련 사역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니 나중에 생각하자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국내외적 이동과 대면 활동이 매우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정상화 이후에는 오히려 스프링이 눌러졌던 높이 튕겨지듯 사람들의 이동과 대면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의 외부 활동 증가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 대상자와의 접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빈번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로 국

내외 전반에서 북한 출신의 선교대상자들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선교현장은 많은 사역자들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고 중단된 사역도 많은 만큼 상당히 공동화되어있다. 이런 맥락에서 변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 이후에야 선교에 나설 준비를 시작한다면 정작 가장 좋은 선교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위드코로나 초입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교회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예배 모임이 어려워지는 등 분명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 건물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 각종 모임 출석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에게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예배하고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였고, 각 교회들에게는 교회 사역의 근본, 즉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맡기신 민족 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써야 한다. 코로나 시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정 종 기 교수(고신총회통일선교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위드코로나 의미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 위드코로나이다. 물론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약간의 일상을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주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한국교회는 교회 좌석 수의 50%까지 예배 참석 허용이 됨으로 과거 대면예배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되찾아 성도의 교제와 예배

의 참맛을 느끼게 되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일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지금까지 거리두기 등의 고생이 위드코로나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언제든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고, 중환자가 속출하면 서킷 브레이크를 내릴 것이라고 한다. 결국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혼돈의 시간이 될 것이다.

과연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처음 코로나19가 왔을 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메르스처럼 잠시 왔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팬데믹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일상을 접고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백신이 개발되고 70%이상이 되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리라 기대했지만 이것 역시 만만찮다. 독감치료약처럼 먹는 값싼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감기 정도로 여기고 쉽게 넘어갈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것들 역시 쉽게 만들어지지 않음에 걱정이 앞선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가기에 선불리 과거처럼 행동할 수 없다. 교회도 선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선교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임을 우리는 안다.

굳게 닫힌 북한선교의 문

코로나19는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고, 선교현장에서는 선교사들을 철수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선교사역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대면사역이었기에 선교는 팬데믹에 의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다.

통일선교도 예외는 아니다. 통일선교의 대다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인데 코로나 이후 탈북자들을 보기 어려워져 이 사역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북한선교 단체들 중 많은 숫자가 탈북자 구출사역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한산한 단둥 세관의 모습

데 구출사역이 완전히 멈추어 서 버렸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최대한 이동을 멈추었기에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오는 인력송출마저 메말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역은 철퇴를 맞아 고사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코로나19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문을 더 굳게 닫게 하였다. 북한 내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마저도 멈추어 서 있으니 북한 내지 선교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에 대해 그리 인심이 후한 것은 아니다. 중국 등에서 탈북자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철수한 한국에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사역전환을 하고 싶어도 선교회에서 그리 만만하게 받아 주지 않고, 파송하



고 후원하던 교회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이런 현상은 북한선교사의 숫자를 줄어둘게 만들었고, 몇 안되던 통일선교하는 교회의 관심마저 멀어져 갔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던 현상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통일선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찌보면 이것이 아주 당연한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현 주소일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 통일선교가 여기서 멈추어 서야 할 것인가? 위드코로나 시기가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한다. 위기는 막힌 사역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기회는 통일선교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막힌 문이 언제 열릴 지 바라보지 말고 열려 있는 문에 집중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때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통일선교에 대해 몇 가지 제안 한다.

첫째 : 한국에 들어 온 탈북민들과 정식 비자를 받고 출국한 북한주민들에게 집중하라.

통일선교하는 한국교회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그동안 손에 잡히던 탈북자 구출사역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과 정식비자를 받고

출국한 북한주민들을 바라 보는 것이다. 통 일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33,800명이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는 탈북민 1만3,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만2,589명 중 5,218명(41.4%)이 기독교(개신교)를 믿는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불교 1,305명(10.4%) 가톨릭 1,215명(9.7%) 순이었다. 종교가 없다는 응답도 3,588명(28.5%)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는 줄어든 통계이나 10명 중 4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는 숫자는 여기서 많이 줄어 들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은 약 10%정도일 것이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약 90%의 탈북민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약 90%의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째는 탈북민 중에 신앙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도와 신학공부를 하게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었으면 한다. 현재 약 100여명(혹자는 200명이라 한다)의 탈북민들이 신학대학과 신대원에서 공부한다고 하니,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좀 더 깊이 도와야 할 것은 탈북민 신대원 학생들에게 부교역

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느 목회자는 ‘탈북민들이 부교역자로서 부적합하여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 말은 틀리지 않는다. 그들의 경험 이 한국사회에서 부교역자 역할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들의 경험만 보면 그렇지만 이들을 훈련시켜 더 큰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이들을 채용하고 훈련시켜 교회의 리더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또 다른 곳은 북한에서 정식비자를 받고 출국한 이들이다. 이들은 대다수 외화벌이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송환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자들이 있고, 계속 외화벌이로 나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들을 만나서 말을 건네기조차 어렵다. 항상 감시가 따라 다니기 때문이고 나아가 그들의 사상이 남달리 투철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역 할 팀을 꾸려야 하고, 현재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집중해서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 북한의 개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라

2021년 6월 북한은 유엔에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의 현재상황과 앞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대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임수진 자매의 논문을 보면 북한의 내부 변화를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북한에서 의사의 아내로 10년간 살았던 미국인의 경험담인 「Discovering Joy」(Joy Yoon, 2018)를 보면 북한은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개방은 김정일처럼 모기장식 개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크게 열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분명 살기 위해 변화를 모색할 것이고, 그 변화는 개방으로 이어 질 것이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예측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한다. 이런 준비에 대해 한국교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 등을 열어 나가야 하고, 정부와 협력해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선한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이 막혔다 하더라도 UN이 허락한 것이 있다.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경로를 찾아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마라.

셋째 : 한국교회를 남한성도와 북한성도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나가라.

김의혁 교수(송실대)는 한국교회가 남과



북이 함께하는 4개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제안하였는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수평적 확대의 공동체, 연결하는 통로 공동체, 탈북민 리더십을 세우는 공동체이다.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이다. 그들이 한국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이민자들이 그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일문화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어 진입하려고 하는 사회의 공동체를 만나야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탈북민들도 이민자와 거의 같다. 탈북민들의 동일문화권의 공동체를 한국교회는 교회 내에 만들고, 이어 남한 성도들이 함께 하여 더불어 그리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면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접

촉점을 마련하게 된다.

넷째 : 온,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어졌던 대면선교가 위드코로나로 인해 조금 숨통이 터졌다고 본다. 그동안 이동할 수 없었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입국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다. 관광이 조금씩 되는 것이 우리에게선 선교적 대면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선교 비전 트립마저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대면은 분명 통일선교에 희망적인 것으로 작용하나, 전면적으로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때 코로나19아래서 배운 비대면의 장점을 최대

한 살려야 한다. 적어도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해외에 나온 탈북민들에게 줄 정보를 만들어야 하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온라인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한 선교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다섯째 : 연합하라.

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외친 것 중 하나가 연합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연합해야 하는 큰 이유는 중복투자하지 않고, 사역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선교현장 가운데 중복투자가 가장 많은 곳이 북한선교현장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밀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선교현장에서 적어도 각 단체나 교단이 하는 세밀한 것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역자들끼리 교류는 되고, 사역의 형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교단연합은 한기총을 중심으로 하였던 구제사역과 북한교회재건이 거의 전부였고, 달리 교단끼리 연합하여 선교한 것은 거의 찾아보지 못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북한사역목회자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6개 교단 통일선교 실무자들 모임이 있었고, 통일선교 실무자들은 이런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까지 제안

이 나왔다.

여섯째 : DB를 만들어라.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선교의 데이터는 거의 두 개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만든 연구보고서로 “한국교회 목회자 통일인식조사결과 보고서” (2016.2.25.)와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2021.2.24.)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교회 통일선교 사역 실태조사 자료집”이다.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개 교단에서 만든 자료는 없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데이터 없이 현장의 상황에 따른 전략을 세웠다. 지금 고신총회는 교회의 통일선교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는 통일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곱째 : 통일선교를 해외선교로 인식하고 해외선교와 함께 사역하도록 하라.

한국교회는 통일선교를 한국의 해외파송 선교사 23,500여명과 협력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고신총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신총회해외파송 국가는 56개국으로 루마니아, 독일, 영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몽

골, 러시아, 중국,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현지에 북한선교센터를 세우고, 현지인 기독교인 중 북한으로 선교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북한선교에 대한 강의를 한 후 한국에서 교단 선교훈련을 받게 하는 과정을 세우고 있다. 고신총회는 아니지만 현재 한국 모처에서 11개국 외국인 성도들이 조선어를 2년 과정 공부하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면 북한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 외국 성도들을 통일선교 훈련을 시켜야 할 때이다. 이 일을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선교사들이 협력해 준다면 한국교회는 통일선교에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결론

위드코로나는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중간단계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든지 다시 코로나19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가 통일선교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코로나19 아래서나, 위드코로나 시기나 혹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되어도 한국교회의 통일선교는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통일선교를 지금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

교회가 통일선교에 관련해서 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 통일선교의 전망과 기도 방향

오성훈 목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의와 현황

“위드코로나”(With Corona)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후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 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정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 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긴 했지만, 11월 16일부터 일일 확진자 규모가 3천 명대를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위드코로나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

한 시민의식과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위드코로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일상회복 1단계에서 교회 및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수칙은 백신 접종자만 예배를 드릴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다 해도 정원의 50%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한국교회가 그토록 바라던 예배 회복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통일선교 사역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통일선교 영역에 닥친 위기를 정리하고,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적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후 첫 주말인 11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코로나19로 인한 통일선교의 위기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통일선교 사역 전반에 걸쳐 큰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북한 당국이 철저히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새로운 탈북자가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규모가 급감했다. 국내 탈북민 유입은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지만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229명, 올해는 9월까지 42명(2/4분기: 5명, 3/4분기: 12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탈북민 사역을 감당하는 지

역교회나 선교단체, 대안학교에 큰 위기로 소가 되고 있다. 지역교회에서는 탈북민 성도 이탈 및 신규 유입의 감소로 인해 당회 및 성도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재정 및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선교 단체들은 북한과 중국 양국의 국경 경비 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한, 감시장비 첨단화 등의 영향으로 탈북민의 구출, 양육 등이 불가한 상황에서 임대료, 선교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워 철수를 결정하고 사역자 인원을 감축했으며, 탈북민 대안학교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면서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제정되는 유감스런 상황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을 경험한 탈북민이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 된 것도 위기로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앞문선교로 불리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역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으로 단행했던 5.24조치로 인해 크게 제한을 받다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싱가포르 북미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부 방역물품을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의 거부로 완전히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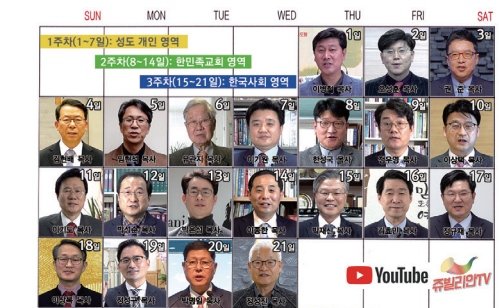
통일선교 사역의 역설적 기회

필자는 2001년부터 통일기도 사역을 20여 년 동안 감당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경험해 왔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그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복음 통일의 역설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히 11:1). 그 기회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사역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지난 4월에 한민족교회의 실천적 회개기도운동인 “탑 무브먼트”(Take Off Prayer Movement)를 진행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무력감과 불순종 그리고 분노를 극복하고, 교회적 차원에서 이념 갈등, 세속화, 몰역사성, 신앙 계승 실패, 신사참배, 분열, 교회중심주의 등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유일성, 이타성, 주변성, 거룩성, 공평성, 변혁성, 현재성과 같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할 이유인 교회의 공공성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장합동 교단이 지난해 말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의견에서 “자기 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항목에 목회자의 95.3%, 평신도의 80.2%가 공감했다. 개신교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예장통합 역시 106회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서 올해 4월 실시한 실천적 회개기도운동 “탑 무브먼트” 시즌1 포스터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다.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의 본래성을 회복한 뒤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민족교회로서 한국교회의 공공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통일선교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비대면 예배 및 소그룹모임을 통해 다가올 메타버스(Metaverse)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다. 메타버스란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온라인 세상에서도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제3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말씀 양육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었다. 필자는 가까운 미래에 메타버스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복음을 변증할 것인지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예배와 통성기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는 것도 통일선교 사역

에 매우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어야 했던 자리임을 깨달아야만, 민족을 위해 나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다. 통일선교는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그의 백성,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사 43:20)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복음회복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통일선교이다. 통일선교만큼 분열된 영역도 없고, 통일선교만큼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에 통일선교 사역현장이 진노 중에라도 공활을 잊지 않으시는(합 3:2)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 통일기도의 방향

코로나19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을 엮매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그보다 훨씬 강력한 국경봉쇄를 감행했다. 올해 4월 8일, 최말단 조직인 세포비서대회 폐막식

서 김정은은 “더는 허리띠를 조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반복하고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6월 15일, 당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스스로 식량난을 인정하며 지난해 태풍 피해로 상황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지 않고, 중국으로부터도 대량 식량 지원을 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도 8차 당대회(1. 6~14), 제1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3. 3~6), 제6차 세포비서대회(4. 7~9), 제10차 청년동맹 대회(4. 27~29), 제7차 전국노병대회(7. 27~30), 공화국창건 73돐 열병식(9. 9), 당 창건 76주년 & 국방발전전람회(10. 10~22), 가장 최근에는 3대혁명 선구자 대회(11. 18~22)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대북 정보자산을 총동원해도 북한체제 붕괴의 조짐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곧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북한을 망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딤후 2:4).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대상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통일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제안한다.

첫째,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이상 북녘땅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활을 베풀어 주소서. 그 땅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소서. 북녘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인도주의 지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를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소서.

둘째,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당대회 회의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없애고, 김정은에게 '수령' 호칭을 붙이며,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모든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올해 9월까지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이 48명에 불과했습니다. 탈북민 사역 단체와 지역교회 부서, 탈북민 대안학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돈과 쾌락과 권력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을 구하게 하옵소서.

넷째, 2023년 7월 27일, 한반도 분단이 완성된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는 주님의 말씀이 한반도 가운데 성취되어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며, 북한교회가 회복되고, 남과 북이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위드코로나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하 광 민 교수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

1. 들어가며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한국사회는 물론 한국교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비대면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각 교회마다 필수적 조치가 되었으며, 그로 인한 각종 사역들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역시 근래 보기 드문 타격을 입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사역의 위축된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이전의 북한선교를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의 각 교회의 통일선교 사역의 현황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통일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2. 코로나 이전의 통일선교사역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 나름 활발한

통일선교사역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통일선교사역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대북직접사역, 2) 통일기도회, 3) 제3국 사역, 4) 탈북민 교육 및 정착, 5) 통일공동체, 6) 통일선교교육

이 중에 대북직접사역은 박근혜 정부 이후 거의 명맥이 끊어졌지만 나머지 사역들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통일기도회는 2010년대부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위시해서 개별 단체 또는 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지속되어 왔다. 제3국 사역은 중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탈북민 구출 양육사역을 하는 사역을 일컫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이 사역들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코로나 이전까지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은 매년 1,000명 정도씩이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통일선교단체의 제3국에서 구출양육하는 사역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한국교회 역시 이 사역에 많이



〈탈북민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모습〉

동참하였다. 심지어 해외 한인교회들도 이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였다.

코로나 이전에 가장 활발했던 사역은 탈북민 교육 및 정착사역이다. 국내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는 총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 4개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한겨레, 여명, 하늘꿈, 드림)이며 나머지 7개교(반석, 남북사랑, 장대현, 한꿈, 우리들, 해솔, 다음) 미인가상태의 학교이다. 이중 9개교가 기독교 배경의 학교이다. 그만큼 탈북청소년대안학교는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사역이 가장 활발한 현장이기도 하다.

한국교회의 통일공동체 사역 역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통일공동체사역이란 남북의 목회자가 통일을 교회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남북의 성도들과 함께 통일공동체(교회)를 시작하는 교회사역을 일컫는다. 코로나 이전까지 통일공동체는 2014년 이후 매년 3-4개의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현재 58개 교회가 존재한다.

통일선교교육은 통일선교사역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로나 발발 이전까지 통일선교단체가 주관하던 ‘북한선교학교’ 또는 ‘통일선교학교’ 등의 이름으

로 통일선교교육이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각 교회에서 통일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지면서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으며 각 선교단체로 들어가서 통일선교에 헌신자로 사역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의 통일선교사역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나름 통일선교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었다. 특이 이 시기 통일선교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역영역은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들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역에서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은 국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었다.

3. 코로나 기간의 통일선교사역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사역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거나 심지어는 폐지된 사역들도 있었다. 사역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기도회는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로 전환되어 실시되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같은 경우에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를 거의 1년 6개월 이상 지속하였다. 기도회 속성상 비대면으로만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3국 구출양육 사역은 전면 중단 내지는 폐지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이 폐쇄되면서 북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중국 내에 탈북자들은 중국 내 이동조차 제한되어 북송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역이 바로 구출양육사역이다.

코로나로 인해 구출양육 사역도 막혔지만, 탈북민 수의 감소를 초래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1,000명 정도의 탈북민 입국 숫자는 코로나 터진 이후 2020년에는 200여명, 올해 2021년에는 올 상반기까지 30여명 정도이니 올해 1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탈북민 수의 감소는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국내 통일선교사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탈북민 감소로 인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직까지는 큰 여파는 없지만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은 신입생 모집에 고심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대안학교들은 대체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각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대체 신입생들은 국내에서 낳은 탈북민 2세대 자녀들도 포함하고, 일반 취약계층 학생들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전에 많이 진행되었던 통일선교학교 등의 프로그램은 거의 다 폐지, 보류되었다. 일부 단체에서는 온라인 선교학교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현장체험학습 등의 부재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선교학교를 통해서 헌신자들이 배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코로나 2년 동안에 통일선교헌신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이는 각 통일선교단체의 선교인력 재생산구조의 악화를 초래했다.

통일공동체들 역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중반부터 매년 3-4개씩 새롭게 시작되던 통일공동체들은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한해에 1-2개 정도가 되었다. 사역의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탈북민 성도들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 성도들이 교회 대면예배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공동체는 한국교회의 후원에 많

이 의존하는데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한국교회의 후원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통일공동체의 북한성도들은 코로나 시기에 실직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동시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 위드 코로나 시기의 통일선교사역의 방향

2021년 11월부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이 정책이 순항하지는 아직 안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기가 정착이 된다면 위드 코로나 시기의 통일선교사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통일선교사역이 위축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온다면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재점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한다.

첫째, 새로운 통일선교사역의 아젠다를 정립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까지 지난 20년간

통일선교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역은 탈북민을 매개로 한 사역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탈북민수의 격감은 향후 통일선교사역의 큰 틀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정착되면 탈북민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한 경로가 가장 활발했는데 현재 중국의 코로나 방역으로 보서는 쉽사리 풀릴 것 같지는 않다. 탈북민 매개의 통일선교가 막히게 된다면 한국교회의 통일선교계는 통일선교사역의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통일선교사역의 새로운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기존의 통일선교사역의 주체는 주로 장년층들이었다. 이들은 북한선교, 통일선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을 돌아보면 통일선교계에 젊은 사역자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교회 내에 다음세대들은 통일과 북한선교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청년세대들이 주도하는 통일선교사역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들이 아젠다를 설정하도록 어른세대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셋째, 다음세대가 공감하는 평화와 통일의 아젠다를 한국교회는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20대들은 통일에 매우 부정적인 세대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20대는 33.9%로 전체 세대별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20). 20대의 80%는 통일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외의 모든 통일희망질문들에서 20대들은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부정적 소견을 드러낸다. 향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통일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음세대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통일에 대한 관념을, 어른세대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그들 스스로 통일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른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는 통일선교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위의 내용들과는 상충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주체인 각 교단들의 적극적인 통일선교정책입안과 교단 내 사역자 양성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개교회와 통일선교단체들이 통일선교사역을 이끌어 왔다. 탈북민들을 매개로 하여 실제로 많은 사역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이 점점 축소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 교회와 단체들의 영향력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주축인 각 교단들이 주도하는 통일선교사역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각 교단들이 할 일은 교단 내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교단 내의 통일선교사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단 내에 통일선교부서 조직을 만들어야 할



〈충신대 통일개발대학원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북기총)에서 주최·주관한 '2021 탈북민교회 통일준비포럼'〉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단 내의 통일선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고무적인 일들은 몇몇 교단들 안에 통일선교사역을 위한 조직 정비와 사역자 양성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장합동에는 총회 내 '통일준비위원회'를 세웠고 충신대학교에 '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하여 교단 내 통일선교사역자를 양성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예장통합은 총회 내 '남북한선교 통일위원회'가 세워졌으며, 장신대 기독교와 사회대학원 내에 '통일평화학과'를 설립하였다. 고신총회는 교단 내 '북한선교훈련원'을 조직하였고, 기성총회는 총회 내에 북한선교 위원회가 항존부서로 승격되었는데 그 안에 통일선교훈련원이 조직되어 교단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각 교단에서 통일선교 부서 조직과 그로 인한 정책 수립, 그리고 그 정책에 맞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5. 나가면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통일선교의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세대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통일문제를 대한다 하더라도 질문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어떠할까? “만일 북한이 붕괴한다면 그 땅을 중국이 가지게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차지하

게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젊은세대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할 것이다. 좀 과격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통일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어른세대가 접근해야 한다.

통일선교를 흔히 문(門)사역으로 비견하곤 한다. 막힌 문이 있고, 열린 문 사역의 종류들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막힌 문들은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열린 문들로 들어가 실제적인 사역은 지속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에는 어떤 문이 열릴지를 기도하며 가장 큰 문인 통일의 문이 열려지길 소망해보자. ☹️

+ '위대한 김정은 시대' 언급한 북한... '김정은주의' 또 강화

북한이 제5차 3대혁명 선구자 대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에서 '위대한 김정은'을 여러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끈다. 올해 김정은 총비서 집권 10년 차를 맞아 내부적으로 정립 중인 '김정은주의'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11월 22일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개막한 3대혁명 선구자 대회 폐막 소식을 전하며 대회에서 "전국의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다"라고 보도했다.

호소문에는 "이번 대회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3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3대 혁명의 최전성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로 빛내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등 '위대한 김정은'이라는 표현이 세 차례 등장한다.

호소문 채택 관련 보도에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등 '위대한 김정은'이 포함된 구호를 외쳤다는 내용도 있다.

'위대한'은 북한이 선대 수령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쓰는 수식어로, 김 총비서를 가리킬 때는 아직 '위

대한'에 못 미치는 '경애하는'이 공식적인 수식어로 표기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관영매체에서 김 총비서의 정치적 위상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수령'이라는 수식어도 자주 등장하고 올해 1월 제8차 당 대회 이후 공식 행사에서 "위대한 수반이신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도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 뉴스1, 11월 22일) ☹️

+ 10월말 탈북민 30명 中공안에 체포... 작년에만 200명 넘게 붙잡혀



〈북중 국경에 세워진 사람 모형 사격 표지판. 탈북 방지를 위한 경고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사진=조선일보)〉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지난주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30명이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0월 22일 중국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국내의 한 선교단체가 중국 동북3성과 산둥성 일대에 숨어 지내던 탈북민 30명을 모집해 지난주 칭다오의 은신처에 집결시켰다”며 “하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한 중국 공안이 이들의 은신처를 급습해 전원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로 한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무연고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탈북민 구출 단체가 코로나 팬

데믹 이후 중국의 통제 강화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30명의 탈북민이 한꺼번에 움직인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민 수는 지난해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요주의 인물들은 북송되고, 대부분은 코로나 유입·확산을 우려한 북한 당

국이 중국 측에 ‘당분간 북송(北送)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12명으로 2021년 현재 입국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됐다. (참고: 조선일보, 10월 23)

+ 유엔 인권담당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북한 반발



〈유엔총회 회의 모습 (사진=뉴스원)〉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1월 17일, 17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되었으며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도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0년째 포함시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버마(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정부들이 단순히 신앙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개인을 괴롭히고 체포하며, 위협과 감금, 또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적대 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대변인은 결의안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편견에 찌든 적대 세력들이 고안해낸 날조 자료들로 일관된 것으로서 상투적인 모략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적대시 책동에 끝까지 강경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뉴스원, 11월 21일)

+ 미·스위스 보고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한 국가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 순위에서 북한이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소재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Trace International)이 최근 발표한 ‘2021 뇌물 위험지수’(Trace Bribery Risk Matrix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 194개국 ‘뇌물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항목의 점수를 평균한 뇌물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으로 판정된다.

북한의 뇌물지수 점수는 94점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정부와의 상호작용’(Opportunity) 98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Deterrence) 100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Transparency) 73점, 그리고 ‘민간 감독 능력’(Oversight) 100점 등 4가지 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뇌물지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었다.

올해 세계에서 뇌물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로 2점이었으며 한국은 21점,

미국은 22점으로 청정국가 순위에서 각각 21위와 23위에 올랐다.

앞서 스위스의 위험관리업체 GRP(Global Risk Profile)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글로벌 부패지수(Global Corruption Index 2021)’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전체 196개국 가운데 최고점인 86.44점을 받아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됐다. (참고: 뉴시스, RFA, 11, 18)

+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에 추가적인 지원물자 반입은 없는 상태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 추가적인 지원물자 반입은 없는 상태라고 11월 9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WHO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일부 받은 바 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지원물자 운송 여부에 대해 "북한 국경은 여전히 대북 물자 운송에 닫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지원 물품이 한 차례 운송된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반입 움직임은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RFA는 설명했다.

살바도르 소장은 "WHO 등 국제 기구들은 필수 물품 운송을 허가하도록 북한 당

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HO는 최근 코로나19 주간 보고서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북한에서 4만413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자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외국인 입국도 막았다.

북한은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백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배정했지만 북한 내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참고: 뉴시스, 11월 10일)

+ 북한, 결핵 사망자 증가로 인한 격리조치 실시



〈MBC 스페셜 '방송의 날 특집 6개월 후 만남이다 : 북한 결핵병원 이야기' 편의 한 장면〉

최근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격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내각 보건성은 11월 13일 각 지역 의료기관과 인민위원회에 결핵 증상을 일괄적으로 진단 검사하고 결핵으로 판명되면 격리 시설에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문에는 어린아이들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은 결핵 환자 강제 격리를 지시하면서 병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시 건물이라도 지어서 격리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북한에 결핵 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당국이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결핵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졌다”며 “결핵은 갑자기 죽는 병

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결핵에 대한 공포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발간한 ‘세계 결핵 보고서 2021’을 통해 북한을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 모두에서 고위험군으로 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결핵 환자는 13만 5천명으로 전년도 보다 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나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 내 결핵 환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결핵 환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66%이며, 결핵 환자의 감염 치사율은 16%라고 밝혔다. (참고: Daily NK, 11월 16일)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예정…탈북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탈북민의 실질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정부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탈북민이 납입하는 금액만큼을 통장에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현재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출산·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업·장애 등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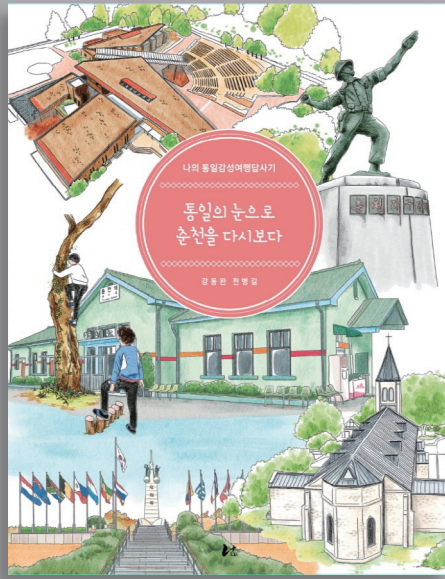
또 개정안은 정부가 탈북민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 건강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건강정보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탈북민의 정보 처리를 제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됐

던 남북통화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북한이탈주민 통합정보시스템(하나넷)의 자체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11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통일부는 이 기간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9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보다
저자: 강동완, 전병길
출판사: 너나들이
발행일: 2021년 6월 15일
가격: 21,000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바깥 활동을 재개하며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움츠려져있던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은 전과 같은 해외 여행까지는 곤란한 점이 많은 현실에서 이왕이면 우리 주변에 의미있는 장소들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관광지들도 좋지만 통일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곳들을 둘러본다면 더욱 가치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보다”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

가 발길을 옮겨볼만한 곳들을 잘 알려주는 “통일감성여행”의 안내책자이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통일의 눈으로” 시리즈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단과 통일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와 유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 제주, 부산, 백령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춘천이다. 춘천편은 전병길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춘천은 지금도 북한과 멀지 않은 전방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한국 전쟁 당시에도 여러 격전이 벌어진 지역이다. 그


런 만큼 전쟁과 관련된 많은 유적과 기념비 등이 도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분단을 종식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고, 분단의 가장 아픈 상처는 바로 한국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춘천에는 전쟁 당시 전투와 격전지가 많았던 만큼 이와 관련된 유적이나 기념비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 책에도 이러한 한국 전쟁 관련 장소와 유적이 여러 곳 소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먼 이국 땅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해외 용사들에 대한 기념비가 인상 깊었다.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름 모를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감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득 최근 각박해져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다. 실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폄하하거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바로 그러한 희생과 봉사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 전파 초기에도 당시에는 동방의 외진 곳에 위치한 미약한 국가였던, 아무 연고도 없던 조선 땅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고 생명의 양식을 함께 전하며 일생을 바친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사역의 흔적을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과 병원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참전 용사의 유적에서도 아무 연고 없이 자유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희생에 감사하며 나누고 섬기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분위기이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강박해졌는지... 책에서 소개하는 장소들과 사연들을 보면서 감사와 함께 왠지 모를 죄송스러움과 씁쓸함이 남는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흔적은 전쟁 유적 외에도 곳곳에 남아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애민 보육원과 최병환 선생의 이야기도 그러하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자 크리스천으로서 애민 보육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섬기신 것이다. 그 당시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를 위해 흘린 희생과 땀방울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최병환 선생도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귀한 모범을 보이셨다. 치열했던 춘천전투의 현장인 우두동 한복판에 위치해있던 우두감리교회 이야기도 인상깊었다. 전쟁 당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할 때까지 고향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 이후 돌아

가시기 전까지 통일을 이야기하셨던 대목을 읽을 때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우두감리교회 담임목사이셨던 이춘직 목사님의 이야기는 역사의 혼동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에피소드였다. 이 책에는 이렇게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며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과 그 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부담없는 구성과 많은 사진 자료로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책이다. 앞서 언급한 몇몇 장소를 비롯한 더

구체적인 장소들과 이야기, 사진들은 해당 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란다.

위드코로나로 바깥 활동이 점차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이왕이면 통일과 북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해보면 어떨까? 이 책을 비롯하여 “눈으로 본” 시리즈를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 통일의 이야기와 의미를 담은 곳들을 찾고 방문한다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소개해본다. 

1. 위드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다시금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북한선교사역 전반이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일부 지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코로나 팬데믹에서부터 정상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억눌려있던 사람들의 외부활동과 국가간 인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정작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귀국하거나 사역을 포기하였고, 국내에서도 교회들의 탈북민 사역에 신경쓰지 못하고 관련 선교부서도 축소, 통폐합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열릴 선교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2. 북한이 지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회의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없애고, 김정은에게 '수령' 호칭을 붙이며,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있었던 제5차 3대혁명 선구자 대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에서 '위대한 김정은'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는 올해 김정은 총비서 집권 10년 차를 맞아 내부적으로 정립 중인 '김정은주의' 강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대를 이어 지도자에게 행해지는 우상화가 무위로 돌아가도록,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주시요.
3. 북한의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당국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최근 내지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부족한 원재료와 자원 상황으로 인해 각종 폐품을 수거해서 바치게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돈을 대신 내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노력 동원 역시 끊이지 않는 등 봉쇄로 인한 경제난을 주민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의 일반 서민들과 또 그 안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의 지원은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원으로 주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정책이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북한 내

북한 기도 제목

주민과 성도들에게 긴요한 필수품들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안전하게 적시에 전달되어 생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과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소출에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작년보다 3만톤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6만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경통제로 인하여 국제기관들의 공식-비공식 지원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올 겨울 북한주민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추위와 굶주림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노력과 수고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5. 중국 채류 탈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에 불법으로 채류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숫자는 1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70% 가량이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도 불안정한 신분과 북송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아왔던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포와 북송의 위협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 당국이 합작하여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저희도 현장을 통해 약 3건 가량 관련 사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이며 선교사님들께서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지만 이동통제의 장기화와 안전의 위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류하는 탈북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안정적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붙잡힌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론을 통해 탈북자들의 체포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11월초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모 선교단체를 통해 모인 탈북자 30명이 공안에 체포돼 북송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북한 기도 제목

에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의 수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코로나 방역통제로 인해 제3국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탈북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통수단 이용시 QR코드 인증은 물론, 병원이용, 약품구입 등을 비롯하여 주요 시설이용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의 안전과 북송 중단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7.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지난11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발표에 대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북한의 반발은 국제사회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여러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식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정권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기도합니다.

8. 최근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남한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탈북민의 실제적 필요를 돕는 시행령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부서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임용소식이 있고 탈북민의 취미생활과 여가를 돕는 비영리 법인들의 발족소식들도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수많은 시도들과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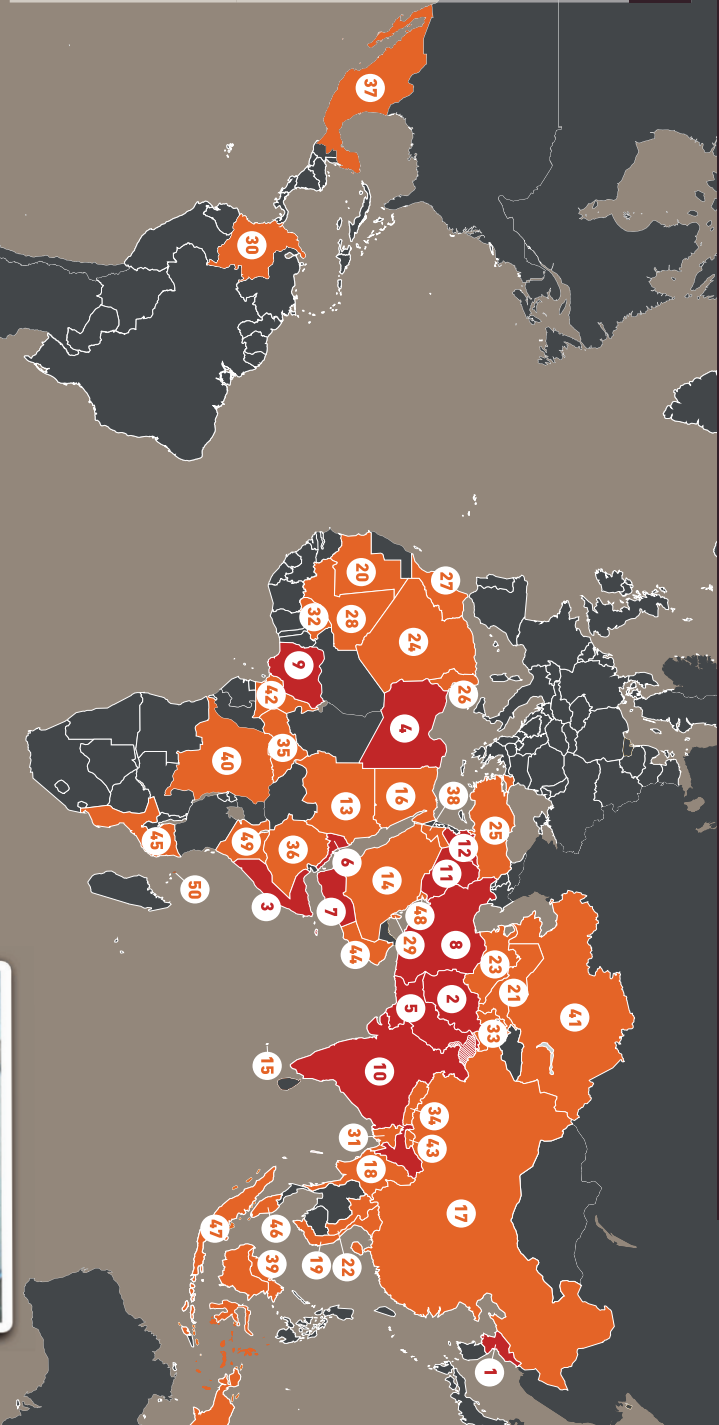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12월 1일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1	북한	26	튀니지
2	아프가니스탄	27	모로코
3	소말리아	28	말리
4	리비아	29	카타르
5	파키스탄	30	콜롬비아
6	에리트레아	31	방글라데시
7	예멘	32	부르키나파소
8	이란	33	타지키스탄
9	나이지리아	34	네팔
10	인도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1	이라크	36	에티오피아
12	시리아	37	멕시코
13	수단	38	오르단
14	사우디아라비아	39	부르나이
15	몰디브	40	콩고
16	이집트	41	카자흐스탄
17	중국	42	카메룬
18	미얀마	43	부탄
19	베트남	44	오만
20	모리타니아	45	모잠비크
21	우즈베키스탄	46	말레이시아
22	라오스	47	인도네시아
23	투르크메니스탄	48	쿠웨이트
24	알제리	49	케냐
25	터키	50	코모로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수위를 정한 목록이고, 종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 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폭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I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족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몇 년이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어설 내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복함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다모데 황제

“너희도 함께 간행 것 같이 간행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13:3

